



時計塔

SIGETOP



2006년 10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3권 4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趙東峻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宋寬鎬

2007 Winter Convention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2007년 연례학술대회가 로스앤젤스의 온화한 기후속에서 2007년 1월 31일 부터 4박5일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학술대회는 물론 유명한 골프코스에서 거행될 골프대회와 서부지역 관광 등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오니 동문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어 오랜만에 동기들과 만나 회포는 푸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07년 1월 31일(수) ~ 2월 4일(일)

장소: PACIFIC PALMS RESORT HOTEL

One Industry Hills Parkway, Industry Hills, CA
www.PacificPalmsResort.com

골프대회: 2월 1일 (목) Pacific Palms Conference Resort Hotel의 Eisenhower Golf course 11시에 Shot gun,
2월 2일 (금) 태평양 바닷가을 바라보면서 Palos Verdes에 있는 Los Verdes 골프코스
2월 3일 (토) 골프매거진에도 소개된 유명한 Oak Quarry Golf Club에서 있을 예정
요리강습: California Premier Culinary School의 Ms. Jane Cahng의 요리강습 예정

회장 조 동 준(64) 학술위원장 정 균 희(72) 준비위원장 최 광 휘(76)

2006-07 회비 납부자 명단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15일 까지

1948 최원로 한용현	1949 고영철 이형모	1950 주 일 한원봉
1951 곽 흥 이상하 오정희 박준홍	1952 김진문	
1953 정약훈 김형건 김수상	1954 이동식	
1955 조종윤 김용선 박병원 박혁석 노용면 양거영		
1956 조동립 도상탁 주창준 서상철 윤신원		
1957 차봉희 정진묵 정구영 정희영 김일훈 김양호 김용진 이동성 유상환		
1957 박건호 임종식 황대연 윤 찬 이민자		
1958 최병두 한영수 김부근 김기태 김백년 김수산 김시한 김순옥 강갑년		
1958 이동록 이민택 이상익 배영섭 박호현 이상설 유치열 신상균		
1959 최종진 한달수 임낙중 강재룡 김병구 김은섭 김교안 김용덕 이교락		
1959 박선용 박형돈 신한수 신영철 유태준 윤만중		
1960 조재동 전희근 김인환 김주택 김택경 김영환 권기홍 이효빈 이덕승		
1960 이순환 임종원 박병근 염극용 김문경 이필순		
1961 안창현 차철준 조은순 최공창 최용성 강세부 김영철 김영기 이한수		
1961 이희경 이재두 이재승 오정환 박준환 박승근 서영석 손기용 서휴열		
1961 양명교		
1962 장항순 진홍우 정 태 구정울 정정수 김한중 김석식 권익현 이상복		
1962 이상무 이석우 민경환 문상규 남성희 박태진 이상원 송영두 유충국		
1963 장세곤 조한원 하상태 한기현 강영호 김택수 김현철 김갑중 김승태		
1963 김태웅 고영희 권영조 이종민 이흥빈 이능석 마동일 노인규 박세록		
1963 임춘수 왕규현 양찬기 윤진수 윤영옥 선우건영		
1964 방효준 차응만 최준희 한태진 홍선경 허선행 조동준 정유석 김원명		
1964 김용두 이재풍 이흥표 이재영 이광신 오태희 박한영 라찬국 이주영		
1964 이종오 양운택 윤흥기 선우세현		
1965 채무원 채도경 장재찬 지영환 정길화 전영근 한재은 홍수웅 황규정		
1965 강길원 김길중 권태해 이범석 이중희 민경택 박수안 이재진 이정희		
1965 서좌일 손광호 서홍석		
1966 장한교 조충열 조관상 최순채 한일성 조의열 김진호 김용재 이명희		
1966 민발식 박용길 노재선 심정섭		
1967 한영수 김명선 김태웅 김용명 이정화 이민우 이소희 이태안 문경웅		
1967 박정일 이태석 유 달 유진일 전영성		
1968 차재철 홍광신 김진홍 김희주 임공세 노영일 서운석 송창호		
1969 안병일 변영석 최종진 김창남 김중권 김일환 김홍서 이충호 임용규		
1969 서만길 신영찬 송기인 송용재 엄규동 윤효윤		
1970 조영갑 최원일 조남현 김형달 송요준		
1971 배성호 장 철 조병선 조세진 최수강 정인용 강창홍 강유구 김효순		
1971 김유식 고기영 이종일 이원택 오동환 서정자 송창기		
1972 오용호 장병호 조경호 김재석 박명영 석창호 최인섭 윤성수		
1973 방병기 나두섭 이계석 이영복 민인기 문대옥 오인환 박진섭 서인석		
1974 권철수 김웅진 이진현	1975 전경배 김자역 김명호 박인영	
1976 박세화 유영걸	1977 최호준 강준희 김동훈	
1978 김동수	1979 백승원 김치갑 김육동	
1983 심인보	1992 조형기	1999 이재용

시카고 지부 2004-05 회비 납부자 명단

강수상(53) 도상탁(56) 김일훈(57) 이민자(57) 배영섭(58) 최대한(58) 최혜숙(59) 안창현(61) 계훈택(61) 김갑중(63) 김인원(63) 이재풍(64) 강침만(64) 오수황(64) 조창안(64) 김길중(65) 구경희(65) 임현재(65) 한재은(65) 이광선(65) 이소희(67) 천양곡(69) 김운태(69) 홍 건(70) 송창기(71) 서상현(71) 위장호(73) 박종희(75) 김영호(77)

Directory/DVD 기금 기부자 명단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곽 흥(51)	30 이상하(51)	25 조종윤(55)	50 김용선(55)	100 노용면(55)	75 양거영(55)	25 조동립(56)	40 주창준(56)	75 서상철(56)	75 윤신원(56)	15 차봉희(57)	10 정구영(57)	100 김양호(57)	75 이동성(57)	50 박건호(57)	10 김순옥(58)	50 이상익(58)	25 배영섭(58)	50 유치열(58)	50 강재룡(59)	75 김용덕(59)	25 신영철(59)	125 유태준(59)	50 윤만중(59)	50 이효빈(60)	50 임종원(60)	100 박병근(60)	50 김영철(61)	25 박준환(61)	75 서영석(61)	100 김한중(62)	50 이상복(62)	75 이상무(62)	25 민경환(62)	75 송용덕(62)	100 유충국(62)	75 장세곤(63)	75 하상태(63)	20 김승태(63)	25 박세록(63)	100 임춘수(63)	25 홍선경(64)	75 정유석(64)	25 김용두(64)	100 이재풍(64)	100 이흥표(64)	75 윤흥기(64)	50 정길화(65)	100 황규정(65)	75 이중희(65)	125 박수안(65)	50 장한교(66)	50 최순채(66)	25 김용재(66)	100 민발식(66)	100 한영수(67)	75 김명선(67)	100 이민우(67)	25 이태석(67)	100 차재철(68)	75 김진홍(68)	75 임공세(68)	25 노영일(68)	75 최종진(69)	5 김중권(69)	100 장 철(71)	75 김유식(71)	75 이원택(71)	25 서정자(71)	25 오영호(72)	100 조경호(72)	50 박명영(72)	25 석창호(72)	100 방병기(73)	25 나두섭(73)	50 문대옥(73)	50 오인환(73)	25 서인석(73)	50 권철수(74)	100 김웅진(74)	100 김동수(78)	100 백승원(79)	100	합 계 \$ 5,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창회 발전 기금 기부자 명단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김기태(58)	375 권기홍(60)	1,000 권영조(63)	875 이종민(53)	125 권영자(63)	1,000 왕규현(63)	200 이흥표(64)	3,000 조동준(64)	1,000 이재풍(64)	3,000 이유찬(64)	500 김일영(71)	3,000 박세화(76)	2,000
---------	-------------	---------------	-------------	-------------	---------------	-------------	---------------	---------------	---------------	-------------	---------------	-------

90세 노인장 이규용 선배님, 싱글 핸디 탄생 대뉴욕지부 "이규용배 추계골프대회"를 마치며

서인석 (73, 대뉴욕)



지난 열흘동안 하루에도 몇번씩 일기예보를 들여다 보고 했지만 한번도 빠짐없이 소나기를 예보하는 바람에 애간장이 바짝 탔다. 지난 봄 골프대회 때도 두 주를 연기하는 바람에 오용호(72) 회장이 큰 애를 먹었는데.

토요일 아침 바깥을 내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이 한껏 반겨 주었다. 지난 하계학술대회 때도 30여 마일 떨어진 마을에서는 물난리가 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SNUC MAA 동문들은 비 한방울을 맞지 않고 무사히 끝냈었다 SNUCMAA의 복원이 감해서일까? 이규용(41)선배님의 기도 덕분일까?

티켓을 많이 떼기로 유명한 팔리세이드 파크웨이를 힘껏 페달을 밟으며 달렸다. 오랫동안 만나뵙는 선배님들께서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셨다. 백승원(79), 김치갑(79), 이영인(86) 후배들이 소매를 걸어 부치고 등록을 받으라, 무거운 짐들을 옮기라, 도착하는 선배님들께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 밖에서는 미세스 최준희(64), 김영철(67), 정인용(71), 오용호(72)들이 김밥이랑 골프공이랑, 음료수 등을 나눠 담아 매 카트마다 정성스럽게 실어 담고 계시는 바람에 이제 막 도착하신 이규용 선배님 내외분과 휴스턴에서 올라오신 막내사위 내외분과 사진도 찍으며 인사를 드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다.

제일 후배랑 같은 조에서 치고 싶으시다는 소원을 들어드려, 45년 후배인 이영인에게 같은 카트에서 잘 모시라고 부탁을 했다. 이영인의 부친이신 이한구 교수님이 이규용 선배님의 조카이신 이덕용 교수님과 정형외과교실 선후배이신 것을 아시고는 더욱 더 기이한 인연에 흐뭇해 하셨다.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만사를 제치고 이번 행사에 참가하신 조동준(64) 회장님의 정성어린 인사를 받으실때, 이 선배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시는 것이 보였다. 경기를 마치고, 클럽하우스 이층에 마련된 부페장에 들어서니, 마주 보이는 벽에 "이규용 선배님 90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큼직한 배너가 걸려 있었다. 각 테이블마다 인사를 하느라 시끌벅적, 오랫동안 만난 회포를 풀기에 여념이 없었다.

올해 11월로 90세 생신을 맞으시는 이규용 선배님의 약력 소개를 해주신

이규용(41) 선배님의 감사편지

조동준 동문 : 10-26-06
다시한 번 드디어 감사해주고싶다.
보내주신 보석, 복분자, 홍삼 등은
오늘부터 관용상 服用하고있
음사리 재민권을 받게하고 건강
을 생각하느라 기쁘게하며 服用하고있
음으로볼어이런 대단한 성품을 배워
려주신게 참 감사드립니다. 90살배기인
이규용

노용면(55)선배님께서 이 선배님의 지극한 동창회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조동준 회장님께서 이 선배님의 건강관리는 골프로 치면 싱글 핸디에 준하는 고수급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내조를 바치시는 사모님의 정성에 감사를 드렸다. 손수 마련해 오신 북분자와 홍삼을 선물로 드리며 100세 생신잔치는 조회장님께서 손수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셨다. 합춘회에서 마련한 티셔츠를 미세스 최준희(64)와



함께 펼쳐 보시며 파안대소를 하셨다. 막내사위, 조카 내외분의 인사말 등에 시종 미소를 띄우고 계시더니, 손녀딸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며 모두 해피버스데이 노래를 합창할 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삼삼오오 이 선배님을 둘러싸고 기념촬영을 하노라니 벌써 밤 10시가 되었다. 국영순 여사(미세스 이명희(66)께 생신 축하를 부탁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100세 생신 잔치 때는 꼭 불러 주실 것을 기약하며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기념사진 및 골프 시상식 사진은 동창회 웹사이트 "www.snucmaa.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뉴욕지부 '이규용배' 추계골프대회 성료

오용호(72, 대뉴욕) 회장, 이규용(41) 선배님의 막내딸과 사위를 포함한 42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손에 땀을 쥐는 열전 끝에 '클래스 63년'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만년 챔피언중 하나셨던 정인용(71)동문은 백승원(79), 김치갑(79) 후배들의 견제에 눌리셨는지 챔피언 자리를 아깝게 백승원에게 물려주셨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이영인(86) 후배가 장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자: 챔피언 백승원(79), 장타상 이영인(86), 근접상 서인석(73).

여자: 챔피언 정인용(71), 장타상 김치갑(79), 근접상 이희경(61)

단체상: Class 63



그때 그 여치 었던가?

이 원 택(71, 남가주)

근래에는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유전자가 빠지면 안되는 모양이나, 개개인의 취향을 결정하는데는 역시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는 원래 시골 태생이라 실내활동 보다는 야외생활을, 또 인조물 보다는 자연을 더 좋아하는데, 집을 볼 때도 건물보다는 정원이 넓은 집을 선호했고, 미국에 와서도 제 버릇 개 못주고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가드닝을 하면서 지내왔다.

Gardening 중에 제일 지루하고 빠골 빠지는 일이 잡초 뽑아주는 일인데, 잡초도 잘 키우면 인공으로 심은 ground cover 보다 더 운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싶으나,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오는 남가주에서는 7월이 오기전에 건물에서 200 피트, 길에서 100 피트 이내에 있는 모든 combustible vegetation을 제거하기로 되어 있다. 아니면 소방서 계속 경고장이 날라오고 dead line이 지나면 엄청난 fine이 property tax에 가산되기 때문에 우리 옆집에서는 우기가 오기전에 매년 weed killer를 빈 땅에다 살포를 하곤 한다. 나도 더 나이가 들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weed killer까지 써가면서 yard가 넓은 집에 살 필요까지는 없다는 오기로 매년마다 봄이 되면 일일이 손으로 잡초를 뽑아주고 있다.

처음에 집을 지을때는 조그만 tractor를 하나 사서 bulldoze 해 버릴 계획이었으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 25도 이상의 언덕에서 트랙터의 배터리를 자주 충전해 주어야 하거나 또 attachment를 수시로 갈아줘야 하는 등 너무나 '비 자연적인 일'에 힘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6년전에 거금을 투자해서 사들인 미니 트랙터는 몇년동안 가라지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가, 팔레미가 하도 보채는 바람에 또 거금을 들여서 shed를 하나 따라 지어서 그냥 엔틱으로 보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위 취미라는 것도 자연발생적이거나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필요에 의해 반복하다 보면 그 방면에 경험과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기가 정열을 쏟는 만큼 더 소중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를들면, 나는 집을 장만하고 나서 가드너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가드닝을 시작했고 또 다른 취미의 하나인 독서는 내 불면증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마누라는 내가 5, 6월 땡벌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하루에 수십번씩 언덕을 오르내려도 쓸쓸한 냉커피 한 잔 타 준적이 없다. "다지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또 친구들 중에도 특히 도회지에서 자란 친구들은 한결같이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시간당 10불만 주면 다 알아서 해 줄텐데, 그 시간에 환자를 보면 시간당 50불은 벌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는 마치 테니스가 조선에 처음 들어 왔을때 양반들이 "그것 참 고안지고! 땀나고 숨차는 그런 일은 하인들이나 할 것이니 우리는 정자에 앉아서 부채질 해 가면서 보고 즐기면 될 것 아닌가."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Lorenz의 Imprinting이나 Pavlov의 conditioning theory를 들출 필요도 없

이 "Human beings are creatures of habits" 이란것이 틀림없는 것은, 이태리 사람이 피자를 제일 좋아하고 대구사람이 능금을 제일 많이 먹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나같이 어려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무 한그루, 꽃 한송이, 잡초 한포기까지 그냥 허술하게 보아 넘기지 못하게끔 대의 심층부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름모를 풀 한포기 한포기에도 여러가지 사연이 맺혀 있을진데, 봄철에 나물을 캐러 갔을때 나보다 두 살 더 먹은 옆집 덕순이가 이것은 먹는 나물, 요것은 못 먹는 나물 하면서 돼지 꼬랑지 머리예다가 강통치마를 휘날리며 뛰어 다녔을 때, 어렵잖이나마 이담에 내가 크면 덕순이한테 잠가 가야지 하는 소망이 내 잠재의식 속에 암금으로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50년이 지난 지금 풀 한포기를 뽑으면서 그 옛날 일을 일일이 기억하기란 무리이겠으나 우리 대뇌의 연상작용으로 어렵잖이나마 어떤 성취감에 젖어들거나 무언가 로맨틱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열심히 치다보면 멋있는 샷이 자주 나오므로 연상작용에다가 상승작용까지 합쳐서 바야흐로 골프가 그 사람의 '취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드닝을 하다보면 또 나같이 '말차 가드닝'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여러 가지 곤충을 접하는데 그동안 개뽕벌레, 쇠뽕벌레, 귀뚜라미, 메뚜기, 배짱이, 방아깨비, 사마귀, 소금쟁이, 어지버지, 보보지 등등은 많이 보아 왔으나, 얼마전에 나이 어린 여치 한마리를 발견하고는 그렇게 반가울수가 없었다. 남가주의 건조한 기후 탓인지는 몰라도 몇십년만에 처음 만난 것이다. 순간 내 머리 속에는 이역만리 이 미국땅에도 여치가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다음에는 요걸 잡아서 여치장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즐기기라는 욕심이 발동했다. 마치 무슨 보물이라도 발견했듯이 우리 팔레미를 소리쳐 불러서는 빈 김치병 하나 가져 오라고 다그쳤으나 늦장을 부리며 나타난 팔레미는 암만 설명을 해도 여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아빠! 난 black tuzzy가 더 예쁜데!" 하곤 가버렸다.

팔아이야 미국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소중한 여치를 김치병에 모셔다가 마치 개신장군의 전리품처럼 우리 마나님한테 받쳐더니 "주접스럽게 뭐 그런걸 다 집안으로 들여와요, 내일 내가 김치병 쓸데가 있으니 빨리 내다 버려요" 하길래 내 일찍이 왜 용준이 아저씨한테 밀짚으로 매끈하게 여치장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나 하고 후회막급이었다. 하긴 여치장 만드는 솜씨가 아무리 빼어나도 또 어디가서 밀짚을 구해 오겠는가. 고민끝에 그 다음날 여치를 방면하고 말았는데, 어렸을때 밀짚으로 땀씨있게 짠 바람이 송송 통하는 여치장에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이슬이 송송 맺힌 호박순 한 잎을 넣어주던 추억이 새롭다. 어린 마음에도 새벽이슬이야 말로 제일 깨끗하고 맛이 있으려나 하고 말이다.

역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성을 쏟은 것이고 결국 사랑이란 것도 다지고 보면 자기 사랑인 것이다.

9월이 오면 나는

이 한 중(65 미시간)

9 월이 오면 나는
산뜻한 마음으로
산뜻한 아침에
산으로
들 벌판으로
푸른 창공 쳐다보며
마냥 걸어 보겠습니다

9 월이 오면 나는
친구들을 찾아
여름 내내 바람을 핑계 대고
삶에 쫓기고 쫓겨 다니다가
잊어버렸던 친구들 찾아
이 땅의 끝까지
저 바다 건너 어느 먼 동네까지 아니
저 하늘과 저 지평선이 입 맞추는 곳 까지도
마냥 헤매어 보겠습니다

9 월이 오면 나는
아름다운 낙엽들을 생각 하게 되고
그러자면 온 갖가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직도 생생한 지난 여름날들의
짙막한 짙막하고 즐거웠던 하루하루들을
정성 들여 곱게
한 톨의 후회도 못 들어 가게
조심스레 포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낙엽들이
이 온 세상을 훌쩍 떠난 그 어느날 아니면
캄캄한 동지설날 늦은 밤에
살며시 열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9 월이 오면 나는
어느새
한 톨의 티끌도 없는
맑은 마음으로
옛날의 소년으로 돌아가게 되고
있었던 친구들
소중한 친구들 하나하나
이 인생을
같이 이해해보고
같이 살아오는 그 분들을
경쾌하게 만날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나는
후딱 지나갈 이 계절을

존 재

노 승 국 (70, 텍사스)

존재의 의미가 아무 느낌없이
무거워지는 밤이면
모두 잊고저 서성이는 잠입어 고적한 시간들,

시침의 강박감도
숫자뿐인 달력의 형식도 없는
세월 초월한 진공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죽음을 기다린다.

평생 여치를 본적도 없는 팔애한테 여치를 좋아하라고 욕박지르는것도 또 여치를 잡으려고 여새풀에 손을 베었거나 여치장을 만드느라 밀짚에 찢려본 적이 없는 어부인한테 여치를 사랑하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독선적 탐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갔다와서 한국과 미국을 골고루 살았기 때문에, 또 60 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회상의 자료가 풍부하여 다방면에서 '취미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이와같은 경우는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문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므로,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연륜을 쌓아 왔다는 것으로 앞으로 살아갈 여생에 그만큼 깊이를 더해줄 것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늙어간다고 또 은퇴를 한다고 의기소침해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무언가를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우연히 발견한 여치 한 마리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얼마나 신선한 충격인가(?) 우리가 시골을 떠난다면, 바로 그 여치가 50년전 그 때 그 여치와 똑같은 여치가 아니겠는가?

간추려본 동창회 창립 25주년 그 이후

26대 (1997년) 부터 34대(2006년) 까지

26대 (1997-98년)

- 회장: 송관호(64) 총무: 김영철(67) 재무: 석창호(72)
- 모교 동창회 합촌회관 건립 기금중 \$170,000을 모교에 전달함.
- 이종식(82) 동문이 연구 기금을 수상함.
- Annual Ball: 1997년 11월 22일 뉴욕 Pearl River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개최함.
- 모교 방문 및 모국 관광: 1998년 4월 20일-25일 Silver project의 일환으로 모교 방문, 한국의료계 시찰, 동해안과 남해안 관광을 시도함.
- 해외 거주 동문 및 가족들의 모국 방문시 우선적으로 모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을 모교 동창회에 설치함.
- 97년 11월 22일 annual ball과 같은 장소에서 young professional party를 개최함.
- 제15차 하기학술대회: 98년 6월 28일-7월 5일, 버뮤다 크루즈 선상에서 개최함.

27대 (1998-99년)

- 회장: 배영섭(58) 총무: 서상현(71) 재무: 위장호(73)
- 1998년 7월 1일부터 서량(69) 동문이 신입 편집장에 취임함.
- 유태준(59)동문이 제1회 합촌 의학상을 수상함.
- 시계탑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1994년-1999년 시계탑에 게재된 작품들을 모은 '시계탑 문집' 제2집을 발간함.
- 마취과 기금을 설립함.
- 새 Directory 발간함.
- Annual Ball: 1998년 12월 12일, 시카고 오히라 공항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함. (110명 참가)
- 제16차 하기 학술대회: 1999년 7월 1일-5일, 시카고 근교 인디안 레이크 리조트 호텔에서 개최함. (300명 참가)

28대 (1999-2000년)

- 회장: 한성수(60) 총무: 이근웅(67) 재무: 이치훈(69)
- 김승업(60) 동문이 제 2회 합촌의학상을 수상함.
- 2000년 1월 1일 송관호(64) 동문 KAMA 회장 취임함.
- 2000년 3월 18일 한혜원(61) 동문이 '아주인 평등회'가 수여하는 '평등의 꿈' 상을 수상함.
- Annual Ball: 99년 11월 13일, 클리블랜드 메리웃 호텔에서 개최함.(130명 참가)
- 제17차 하기 학술대회: 2000년 6월 30일-7월 4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근교에 있는 Quail Hollow Resort에서 개최됨. (280명의 동문 및 가족 참석)

29대 (2000-2001년)

- 회장: 동형근(57) 총무: 이종현(66) 재무: 이창석(78)
- 2000년 7월 1일: 뉴욕 후러싱에 동창회 사무실 개설함.
- 합촌회 일동이 동창회 사무실에 컴퓨터 및 프린터를 기증함.
- 조세진(71) 동문이 제3회 합촌의학상을 수상함.
- 고 이내열(71) 메모리얼 펀드를 동창회 장학 기금에서 운영함.
- 2000년 7월 30일-8월 3일: KAMA 주최 백두산, 두만강 유역 의료 봉사 21명의 동창회원들이 참가함.
- 합촌회에서 불우한 여성들에게 교육과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는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에 기금을 전달함.
- 합촌회에서 한국 안양에 있는 나병 환자촌 '라자로 마을'에 기금을 전달함.
- 2001년 4월: 동형근 회장 모교 방문시 합촌회관 건립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한 미주 동창회의 의견을 전달함.
- 2001년 5월: Green Project Committee를 Ad hoc committee로 발족 시킴.
- 새 directory 발간 함.
- Annual Ball: 2001년 1월 29일, KAMA 학술대회장인 라스베가스 MGM Grand 호텔에서 개최함. (200여 회원 및 가족 참석)
- 제18차 하기 학술대회: 2001년 6월 27일-7월 1일, 캐나다 Kananaskis에 있는 델타 호텔에서 개최함.

30대 (2001-2002년)

- 회장: 조한원(63) 총무: 김흥서(69) 재무: 윤성수(72)
-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1,000을 적십자사를 통해 성금함.
- 회비를 \$100에서 \$125로 인상함. Scholarship fund에 \$30, revenue sharing에 \$15은 변함이 없음.
- 2002년 3월 20일 정구영(57)동문이 합촌대상을 수상함.
- 한혜원(61)동문이 합촌의학상을 수상함.

- International Scholar exchange program committee를 신설하여 이민택(58)동문을 위원장으로 위촉함.
- 2001년 11월 18일: 뉴욕지부 annual ball과 같은 장소인 뉴저지 대원식당에서 young professional party를 개최함.
- 제19차 학술대회: 2002년 1월 24일-28일 캘리포니아 Indian Wells에 있는 르네상스 에스메랄다 호텔에서 개최함. (120여명 참석)

31대 (2002-2003년)

- 회장: 정정수(62) 총무: 문대욱(73) 재무: 심완섭(73)
- 합촌회관 건립기금 \$210,000을 모교에 전달함.
- 2003년 1월 1일 추재욱(63) 동문 KAMA 회장에 취임함.
- 미네소타 펀드에 \$57,000이 모금 되었음.
- 최영자(66)동문이 제6회 합촌의학상을 수상함.
-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총액의 50%(\$ 10,00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함.
- Green project를 위한 모금을 시작함. \$23,000 기금 마련.
- Annual Ball: 2002년 12월 21일 뉴저지, 대원 식당에서 개최함. (186명 참가)
- 제20차 하기 학술대회: 2003년 7월 2일-6일 볼티모어 근처 Turf Valley Resort에서 개최함. (238명 참가)

32대 (2003-2004년)

- 회장: 이재승(61) 총무: 도상철(69) 재무: 조병선(71)
- 2003년 7월 1일 : 김병석(59) 동문이 시계탑 편집장에 취임함.
- 김윤범(58) 동문이 합촌대상을 수상함.
- 2003년 9월 17일: 이재승(61) 회장이 신축된 합촌회관을 방문함.
- 노용면(55), 박경민(59), 한혜원(61)동문이 '인물로 본 미주 한인 100년사'에 수록된 101명 명단에 선정됨.
- 미네소타대학 자매 결연 50주년 행사에 \$5,000을 지원함.
- Annual Ball : 2003년 12월 28일 KAMA 학술대회장인 올랜도 메리웃 호텔에 서 개최함. (110명 참가)
- Green project committee를 Adhoc에서 standing committee로 확정시킴.
- 고 박승서(48) 장학 기금을 설립 함.
- 시계탑 창간 30주년 기념 '시계탑 문집' 3집을 발간함.
- 제21차 하기 학술대회: 2004년 6월 30일-7월 4일 펜실바니아주 허쉬 호텔에서 개최함. (200명 참가)
- 2004년 7월 2일: 시계탑 창간 30주년 행사를 하기 학술대회 기간 중 거행함.



33대(2004-2005년)

- 회장: 이한중(65) 총무: 이태석(67) 재무: 오동환(71)
- 박명근(60) 동문 합촌대상을 수상함.
- 2004년 11월 15일-16일: 미네소타대학 자매 결연 50주년 행사에 이재승(61) 전 회장, 이종욱 WH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함.
- 2005년 1월: 권기홍(60) 장학기금을 설립 함.
- '현대의학 100주년 기념회'(이길여(57) 위원장)에 \$2,000을 회사함.
- 최순채(66) 동문이 유타주에서 개최된 내셔널 챔피언십 스키대회(NAS TAR)에서 우승함.
- 염선영(2002) 동문이 세계 생물 정신 의학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함.
- 제22차 학술대회 : 2005년 3월 9일-12일 후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함. (104명 동문 참가)



34대 (2005-2006년)

- 회장: 최준희(64) 총무: 서인석(73) 재무: 심인보(83)
- 허리케인 카트리나 희생자들을 위해 \$2,000(합촌회 \$1,000 포함)를 미 적십자사를 통해 성금함.
- 남가주 시계탑이 창간 됨.
- 2005년 9월: Silver project의 일환으로 민경탁(65) 동문의 주선으로 마련된 silk road여행에 2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여 함.
- 2006년 1월 1일: 동창회 사무실 이전 함.
- 오태요(62) 동문의 자제인 오유진이 모교 재학생 2명에게 4년간 학비 총액의 50%를 제공하는 장학금을 수여함.
- 2006년 1월 1일: 1997년 가동을 시작한 동창회 website가 오랫동안의 동면기를 거쳐 산뜻한 단장으로 재 가동됨.
- 새 directory 발간함.
- Central Office Management Committee를 Ad hoc에서 standing committee로 승격 시킴.
- Annual Ball: 2005년 11월 19일 뉴저지주 대원 식당에서 개최함. (182명 참가)
- 제23차 하기 학술대회: 2006년 6월 25일-29일 뉴저지주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타지마할 호텔에서 개최됨. (123명 동문 포함 230여명 참가)
- 처음으로 도입된 컴퓨터 클래스가 민경탁(65), 김길중(65) 동문의 노력으로 큰 호응을 얻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8회 졸업 40주년 기념

일시: 2004. 10. 18 장소: 오명신라



동문동정

- 정구영(57) 동문: 9월에 한국에서 모친상
- 김병석(59) 동문: - 7월 22일 어머님께서 향년 95세의 일기로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김 동문은 6남매중 둘째인데, 형님께서 일찌기 작고하셨기에 현재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김병석(59) 동문: 8월에 한국에서 모친상
- 오형원(59) 동문: 9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장모상
- 윤홍기(63) 동문: 딸 사라 윤의 결혼식이 지난 9월 3일 로스앤젤스에서 있었다.
- 설원종(66) 동문: 9월 30일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했다. 동창회에서 조화 보냄.
- 김동훈(77) 동문: 9월에 한국에서 모친상

국내외 서울의대 11회 동창님들께 알립니다

내년이면 우리가 서울의대를 졸업한지 어느덧 반세기가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될 수도 있는 이 특별한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 동창들을 대표해 정구영 동창과 박희백 전회장, 변상현 회장 그리고 총무인 제가 내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일정이 잡혔으니 알려드리고 이번에는 우리의 역사와 뿌리를 찾아보는 남한 일주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10일(수)	동창회관과 모교 방문하여 발전기금 전달 및 역사강의, 만찬 (남보원씨 출연)
10월 11일(목)	서울 - 수역사 - 유성온천 1박
10월 12일(금)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촬영소(부안)와 이순신 장군 전투지 방문 - 해운대 1박
10월 13일(토)	부산 - 경주(불국사) - 용평 1박
10월 14일(일)	용평 - 설악산(단풍관광) - 서울
10월 16일(화)	18일(목) 까지 제주도(2박 3일) - 서울 송별 만찬

요사이 중국의 한국역사왜곡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함춘회관에서 저명한 역사학자를 초청하여 '중국의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왜곡 그 진실은 무엇인가'와 '임진왜란과 충무공의 고난과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도록 하였습니다.

모교는 현재 서울의대 발전기금 모금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모교를 방문시 저희 11회의 명성에 걸맞는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내년의 행사에는 생존해 있는 우리 동창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우정을 다짐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면 543-1017(이종구 서울), 407-876-9494(정구영 동창, 미주)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대 11회 동기회 회장 변 상 현
총무 이 종 구

김혜중(66)형을 애도하며

김 용 재(66, 대뉴욕)



2006년 7월 7일 형은 가셨습니다.

내가 모친상을 당하여 애통하여 할 때 형이 나한테 위로하는 e-mail을 받은지 한달도 안되어 형까지 세상을 떠났다니 이 통탄을 어찌해야 되단 말이오. 은퇴한 후 서울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고국에 와서 살으니 마음도 편하고 좋다고 하였고. 그러나 나한테는 뭔가 어두운 음성이었고 밝지가 않았다고 생각되고, 어쩔 수 없는 노년기에 감수 할 수 밖에 없는 인간적인 고뇌의 일면이 아니었나 생각했을 뿐이오. 평소에 혈압이 약간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형의 갑작스런 부음은 너무나 받아드릴수 없는 사실이었오.

형은 2004년 말에 은퇴하고 곧장 3개월간 Queen Elizabeth II 유람선에 몸을 싣고 구비구비 세상을 둘러보고 꽃피는 봄 사월이 되어 뉴욕 부두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였었오. 여행이 어떠했냐고 물었더니 떠돌이 지루할 때도 있었으나 좋은 체험이었다고 흐뭇하여 하였고. 그뒤로 서울 서초동에 자리잡고 이주하여 잘지낸다고 하였고.

금년 10월에 졸업 40주년 행사 때 만나자고 한 철석 같은 약속을 3개월이 모자라서 지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형이 원망스럽소. 한국 생활 2년도 못채우고 총총 가버린 형 너무도 야속하고 억울합니다.

대전 고등학교를 다닐때 한반에서 앞뒤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거의 50년전의 일들이 생각나오.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났던 형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B수학선생한테서 찬밥 신세였던 일, 같은 김씨에 항렬이 하나 높은 나를 부를 때 기분나쁜 '아저씨'요 서투르면 '용재야'라고 불려 가끔 당황스럽게 하던일이 기억나오.

예과 시절에 형은 학생 대표로서 운동 선수로서 활약을 많이 하였소.

그러나 형은 일찍 부친상을 당하여 어린 동생들, 어려운 가정, 가정교사 등으로 쉽지 않은 대학 생활이었으나 항상 활기차고 유모어 감각이 많았오. 항상 특징적인 충청도 억양을 써가며 주위 사람들을 웃기는 일이 많았오. 형이 들려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농담이 있오.

-떡장수 아줌마가 갑자기 장사가 잘되어 집에와서 연구해보니 고갱이에 생긴 작은 틈바구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장날에는 더 많이 팔아볼 요량으로 틈새를 더 크게 하였는데 예상과 반대였다. 하도 이상해서 옆가게 아저씨한테 한탄을 하였더니 "떡짜깁지 서서도 다 뵈는디 뵈뵈시리 떡값까지 써가면서 보겠어유 윈~참"

이런 농담을 하면서 같이 웃었다.

형은 가셨어도 우리보다 조금먼저 가셨을 뿐이오.

앞서거나 뒤서거나 따라갈 우리를 보고 "그라 잘들 사시다가 천천히 오시게"하고 하면서 빙긋이 웃어보일 형의 얼굴이 보이는 듯합니다.

친구이자 조카 이기도한 소중한 형을 보내며 복노아 읊니다.

좀더 자주 만나 노년기를 가까이 보내고 싶었는데 후회 뿐이오.

50년간 보여준 우정과 배려를 감사하며 형과 같은 친구를 기졌던 내가 얼마나 행운아 였나를 뒤늦게 더느낍니다.

형의 명복을 빕니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영국 시인 퍼시 셸리의 시 [서풍부](西風賦, (Ode to the West Wind)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명한 구절이다. 그러나 이 시구는 사실은 그가 따뜻한 남쪽나라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을 때 쓴 것이다.

음울한 영국에서 일단 겨울이 시작되면 봄이 오기까지 오랜 기간을 집구석에 집거해야 한다. 그래도 마침내 늦게나마 봄이 오면 나무에 싹이 돋아나고 들관은 새로 자란 풀과 꽃으로 장식된다. 겨울 내내 웅크렸던 몸을 펴고 대지로 뛰어나가 딸기며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봄 감자 등을 캔다.

또 여러 가지 향이 나는 약용 식물을 파내어 차로 끓여 마시면서 몸에 축적되었던 겨울철 혈액을 정화시킨다. 전통적으로 약용식물이나 향초를 밝히는데 영국사람들을 따르기 힘들다. 그래서 예전부터 영국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윌리엄 워더링 박사는 스테포드란 지역에서 당시 일년에 1백 파운드를 벌던 시골의사였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버밍엄이란 도시로 옮겨 그곳 종합 병원의 수석 의사로 복무하면서 1천 파운드의 연봉을 받았다.

이곳은 청교도 전쟁 때 크롬웰 군대에 1만 5천 자루의 칼을 제조 군납한 이후 아주 바쁜 공업도시가 되어

있었다. 워더링 박사는 큰 도시로 이전하기는 했어도 예전부터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 틈마다 시골 들관을 돌아다니며 식물을 채집하고 연구하는 취미를 계속했다. 그 당시 버밍엄에는 산소를 발견한 조셉 프리스틀리, 철도를 고안해 낸 제임스 와트, 병왕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셜 같은 일류

과학자들이 몰려 있었다. 그들은 [루나 소사이어티](Lunar Society)를 만들어 매달 달이 완전히 차는 날에 만나 과학과 철학을 토론했다. 워더링 박사는 이 회의에 속한 식물학자였다. 그가 1776년 발간한 [대영제국에 자생하는 전 식물도감]은 당시 그가 의사이로서보다는 식물학자로 이룬 위대한 업적이었다.

그는 다방면에 소질이 있어서 유행병학자로 성홍열을 연구했고 지질학자로 배리엄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우유 짜는 미친한 시골 처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두를 발견한 제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시골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말을 나누기로 유명했다. 또 제나와 같이 플루트를 즐겨 불었다.

1775년 그가 한 마을 언덕을 돌아다니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다리에 물이 차서 부어오르는 부종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당시 영국에는 이런 환자가 많았던 것 같다.

디지털리스 발견

정 유 석(64, 남가주)

이런

중 세 를

Dropsy(水腫)이라

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바지가 터질 정도로 다리가 부어오르고 신발을 신지 못 할 정도의 부기가 있어도 부작용으로 따르는 격심한 구토를 각오하고 스무 가지 약용식물에 다린 차를 마시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식물에 대가인 워더링 박사는 이들 식물들 중에서 정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폭스글로브"(Foxglove)란 식물임을 금세 밝혀냈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폭스글로브를 가루

로 만들어 탄 차를 이런 환자에게 주어 실험해 보았다. 부종이 있는 환자는 대량의 소변을 누면서 부기가 가라앉았다. 그는 폭스글로브에서 주성분을 추출하여 '디지털리스'란 이름으로 불렀다. 이 약에는 심장 근육을 수축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워더링 박사가 디지털리스의 효과를 발표하자 많은 반박이 있었다. 몇몇 의사들이 부종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부종이 병이 아니고 질병의 한 증상이란 사실을 모르던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몸에 물이 차는 것은 크게 나누어 신장(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거나 심장(염통) 근육의 약화되어 펌프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디지털리스는 신장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에는 효과가 없다. 그러나 심근이 약해져서 몸에 물이 찼을 때에는 심근의 수축력을 즉시 강화시켜 부기를 없애는 것이다. 디지털리스는 필자가 의학생이었을 때만해도 혈압강화제로 제일 앞에 나와 있었다. 독성 때문에 요즘은 이런 목적으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위급한 상태로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이 있어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가 있으면 디지털리스를 주사하여 순식간에 생명을 살리고 있다.

1. 제약사에 매수된 논문과 학자들
미국정부통계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우울증 걸리는율이 2배나 높고, 일생동안 우울증이 될 위험도는 25%나 된다.

AMA서는 미국임산부의 1%(4만명)이상이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2005년도 항우울제의 총매상고는 125억 달러(\$12.5B)이라는 거액이다.

그런데 현재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여자는 "임신해서도 계속 약복용을 해야 하나?"의 문제가 논점이 되고 있다. 지난번 JAMA(2006. 2. 1)에 미국의 유명대학교수 13명이 참여한 연구결과, "임산부가 항우울제 투약을 중단하면, 우울증이 재발할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한 논문이 나왔다. 13명 가운데는 다음에 언급할 하버드의 L.S. Cohen 교수와 Viguera 교수, 그리고 Emory대의 Stowe 교수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논문은 임산부의 항우울제 사용중단을 경고한 최초의 문헌이기도 하다. 여태까지는 "임신중 호르몬 변화가 임산부를 우울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번 JAMA 논문은 종전 학설과 상반되는 글이라는 점에서 학계와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JAMA의 새로운 뉴스는 신문과 텔레비전 등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저자들의 강연에 의해서 널리 전전되었다.

임신과 항우울제의 안전성문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약품 판매가 감소하던 차에(도표 참조), 때마침 임산부에게 항우울제 계속 복용을 학계권위자들이 추천한 JAMA 논문은 항우울제-제약사에게 일대 회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 13명 모두가 항우울제 제약사의 상담역 또는 강사로서 금전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된 것이다. 그리고 그중 7명의 연구는 이들 제약사의 자금으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 저자들은 전반적으로 60종류의 재정지원을 제약사로부터 받았음에도, 그중 1건도 잡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하버드의 닥터 Cohen은 순회강의에서 "임산부가 항우울제를 사용하면 출생아에 해롭다"는 다른 논문들을 비방하고 다녔으며, 그들 논문과 주장이 사회여론을 좌우하고 학계의 가이드라인에 영향 미치게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005년도 5대 항-우울제 매상변동 -출처: IMS Health-

Sales of the top five SSRI antidepressants:			
DRUG (MAKER)	2005 SALES (Billions)	% CHANGE FRCN 2004	
Zoloft (Pfizer)	\$3.1	-2%	
Lexapro (Forest Laboratories)	\$2.1	19	
Paroxetine (generic)	\$0.5	-27	
Paxil (GlaxoAmithKline)	\$0.3	-61	
Prozac (generic)	\$0.2	-7	

JAMA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NEJM 지(2006. 2. 9)는 항우울제 사용하는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위험한 호흡장애 질환 PPHN((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지속성 폐고혈압)이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산디아고 UC대학에서 Chambers 교수 연구팀은 1998년부터 2003년에 걸쳐 1,213명의 산모, 즉 등록된 PPHN의 영아를 가진 377명의 산모그룹과 정상적인 영아를 가진 836명

의 산모대조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 했다. 그 결과 임신 20주 이후에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한 산모가 낳은 신생아에서 PPHN 발생률이 비복용임산부보다 6배나 높았다. 신생아에 PPHN으로 생기는 중증호흡장애 (Severe respiratory failure)는 평균 1천명당 1-2명인데,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임산부에겐 6-12명으로 증가한다는 연구다.

이들 연구결과에 대해, 제약사의 돈줄과 관련된 JAMA논문의 13인중의

한사람 Viguera 하버드교수는 "우리 경험과는 전혀 다른 그들 연구를 보고 놀랐다"고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Chambers 의 연구결과와 같은 케이스는 한건도 없었다. 그들 연구만으로 임산부에게 항우울제 사용을 중단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평했다.

Viguera 교수는 SSRI 제약사 GSK의 연사로서 해마다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

그런데 FDA는 최근(2006. 7. 19)발표에서 "모든 SSRI 제약사에게 임산부가 사용시 PPHN 위험가능성이 있음을 처방정보에 기입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음을 알린다.

또한 FDA는 2005년 12월 SSRI약 Paxil에 대해(약에 노출된 임신 초기 임산부는 선천성 심장병(주로 심장격막결손)신생아를 출산할 위험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문 명시를 시달렸다. 스웨덴의 연구 등 여러 곳 연구데이터에 의거해서 결정한 처사다. 여기대해 Cohen 교수는 평가기를 "이 경고는 현재 Paxil 사용하고 있는 임산부가 투약 중단하라는 말은 아니다. 태아가 우울증임산부에 노출되는는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제약사 편을 들었다.

항우울제 생산하는 여러 제약사의 고문직을 맡고 있는 Emory 대학의 Stowe교수(JAMA 13인에 속함)는 FDA의 Paxil 경고문을 두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외국(스웨덴)의 연구를 참작한 졸속한 결정이다"고 비방했다.

이렇듯 혼탁한 논쟁가운데, 제약사측에서는 임산부의 항우울제 사용에 대해서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르라고 점잖게 말한다지만, 제약사의 돈줄과 연결된 학자들 때문에 의사들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이다.

JAMA 논문은 정책위반 JAMA지는 위의 13인이 지난번 논문에서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발표했다. 주필 D 여사의 말인 즉, Cohen을 비롯해 저자들과 제약사의 연관성을 전혀 몰랐으며 사실을 알게된 즉시 그들에게 진상설명을 요구했으나, 내용은 JAMA에 곧 발표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런데 저자들은 제약사와의 연관은 시인하되,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연구결과로 우기고 있다.

최근 JAMA(2006. 7. 12)의 사설에서 정책적으로 AMA는 기고한 저자들에게 산업계와의 재정적 연관성을 보고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하며, 지금까지 이해상충문제 색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앞으로는 더욱 이해상충공개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추가해서 2007년 초부터 저자들은 논문제출시 저자가 서명한 '이해상충이 없다' (No Conflicts of Interest)는 선서를 하게끔 하겠다고 언명하고, 선서

없는 논문은 결코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민단체는 '산업계와의 유대'를 공개하지 않는 연구가는 최소 3년간의 학회 발표를 금지처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다.

2. 부정학 논문은 학문에 대한 배신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과 이중계재 문제가 한국사회에 일대 소란을 일으켰다.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학계의 부정행위에 대한 최고 감독기관이며 교

김 일 훈(57, 시카고)

육부총리는 책임진 총수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책임자 말인즉 "이중계재는 학계의 관행"이라고 시침 댄다니 어이가 없다. 이러한 학계분위기 가운데서 서울대 황교수의 출기세포 연구논문조작처럼 세계학계에 망신당한 사건의 재발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부정학 논문은 학문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오늘날의 인류복지는 헌신적인 과학자의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들 학자들은 그들 나름의 연구발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Publish or Perish (논문출판을 하든지, 아니면 물러나든지 하라!)라는 질박관념 속에서 학문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논문은 그들 연구업적의 결실이자 과학자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전선에서 부정으로 남에게 앞서려는 일부 허욕 많은 사이비과학자의 횡행(橫行)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도처에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황교수 사건을 계기로, 저 유명한 미국의 벨연구소(Bell Lab)의 부정논문 사건을 비롯해서 '세계 5대 과학사기 사건'은 한국의 언론에 이미 소개된 바 있으니 관심가진 독자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웃나라 일본의 일류대학에서 발생한 논문날조사건을 소개해본다.

동경대 논문날조의혹사건:

동경대학은 2005년 9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이라多比良, Taira, 대학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Nature지를 비롯한 해외의 권위있는 과학지에 발표한 12개 논문 중 4개 논문에 관해서, "실험결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잇따라 2005년 9월 22일자 Nature지에 'Lack of lab notes casts doubt on RNA researcher's results'라는 제목으로 일본 동경대학의 논문부정의혹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부정논문의혹은 다음과 같다.

논문내용은 저명한 유전자학자인 다이라 교수팀에서 시행한 <유전자의 작동을 억제하는 'RNA간섭'>이라는 분야의 연구이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작동을 억압하기 위해 이 분야의 임상응용이 기대되고, 이러한 연구는 점차 노벨상의 후보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RNA(Ribonucleic-acid)에 관한 연구자로 구성된 일본 RNA학회는 다이라 교수의 연구논문을 검토한 결과 "실험에 재현성이 없다"고 판단하고서 동경대학에 대해 이 논문의 조사를 의뢰했었다(2005년 4월).

대학당국은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

성하고서 조사한 결과, 다이라 교수는 논문 연구를 뒷받침하는데 불가결한 실험데이터와 실험플랜을 기록한 서류를 남기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실험이 실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다. 그리고 연구팀에게 추가실험을 해서 1년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다이라 교수팀은 2006년 3월 추가실험데이터를 제출했으나 조사위원회서 검토한 결과 "부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논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 대해 다이라 교수 말은 "실험결과에 자신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제출이 어려워, 반성하고 있다"고, 황 교수처럼 변명하고 있다

동경대학은 최근 다이라 교수와 조수에 대해 '대학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방침을 세웠다고 전하며, 귀추가 주목된다.

오사카대학의 논문조작사건:

2004년 10월 17일 미국학술지 Nature Medicine에 'Enhance insulin sensitivity, energy expenditure and thermogenesis in adipose-specific Pten suppression in mice' 라는 제목의 일본 오사카대학의 연구논문이 있다.

논문은 '효소 Pten의 작동을 억제하면 과식을 해도 체중이 줄고, 인슐린 작용이 좋아져서 혈당이 내린다는 사실을 마우스실험에서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비만증과 당뇨병이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는 요즘 세상에 가장 요긴한 연구라 하겠다.

Pten은 지방조직에 함유된 중요한 효소(phosphatase)인데, 본 연구는 지방에서 Pten이 결여된 마우스(AdipoPten-KO)를 조성해서 실험했다는 것이다. 내분비학 교수 시모무라(下村)팀의 연구결과이며, 제1 필자는 고마자와(駒澤)라는 의대학생이다. 학계에서 이들 논문에 대한 의혹이 일기시작하자 대학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논문작성에 깊이 관여한 학생필자가 조사위원회에 조작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실험기록노트나 실험용 마우스 조작 발견할 수가 없어 실험 전체가 날조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정이다.

담당교수는 이미 학술지에 논문취소를 신청했다고 하며, 계속 조사 추궁중이라 전한다.

부정논문 고발창구설치:

이상 두 건은 일본의 최고대학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은 부정과학논문사건이고, 다른 대학에도 유사 사건이 많음을 알린다.

그리하여 일본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과학성은 연구논문 부정에 대한 대책으로 논문표절이나 연구데이터 도용 또는 날조와 조작의 고발을 접수할 창구를 부내에 설치키로 결정했다는 뉴스다. 또한 2007년도 연구비 공모의 응모자격에서, 학문의 부정행위에 관여된 자는 향후 10년간 자격을 박탈하는 엄격한 벌칙규정도 세웠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디로.

일본은 교육부 명칭조차 '교육과학성'으로 되어, 여러모로 과학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여러 의료정책제시 뉴스는 너무나 실망적인 것이 많다. 의학연구의 전담이어야 할 국립대학병원을 복지부 관할에 넣어 정부직할 복지환자병원으로 격하하려 드는가 하면, 국립한의원대 또는 국립한의학전문대를 추진하는 등 과학에 역행하는 것들이 허다하다.

과학과 교양교육의 배경이 없고 실업고등학교출신인 두 지도자에 의해서 추진되어온 <다음면에 계속>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제언

장수상(53, 시카고)

동창회의 앞날이 염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미주로 오는 동창들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지가 20년이 넘었고 90년대를 넘기며 은퇴 회원의 수가 해마다 늘어어나면서 미주 동창회가 노령화되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1,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창회가 회원의 평균 연령이 늘어간다고 해서 활동을 멈추어야 할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창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60년대 졸업 회원이 필자의 나이에 이르려면 아직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있다. 10년 후에도 동창회의 규모는 작아질지 몰라도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끊기지 않고 이곳을 오는 후진들이 있는 현 상황에서 동창회의 앞날을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동창회가 창립되던 60년대 후반 대부분의 동창이 20대에 있었고 수련의로 소액의 수당을 받으며 아파트에서 단조로운 생활을 하였지만 그때는 동창회가 자랑스럽기만 하였고 깊은 우애가 넘쳐흘렀다는 것을 상기하시리라. 그 시절에 비하여 이제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有終의 美를 거두려는 단계에 있는 우리는 젊은 날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북미주 동창회가 안고 있는 특수 사정 즉 회원 고령화가 회의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이런 고유한 사정이 오히려 우리의 동질성(同質性)과 형제애(兄弟愛)를 새롭게 깨우쳐 준다고 보았으면 어떨까한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올린 경험을 토대로 유연하고 풍요로운 심경에서 동창회를 가꾸어 보자는 제언을 한다. 여기에 활성화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 생각을 조목별로 열거해 본다.

1. 시계탑의 활성화를 제의한다.

동창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회원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시계탑'이다. 이런 점에서 시계탑이 더 많은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기구가 되도록 연구를 하여야 할 것 같다. 명실공히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인 회장이 그 해 최대의 사업으로서 동창회 참여가 시계탑을 통해서 실천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발전시켰으면 한다. 그 한 방안으로 지금하고 있는 투고의뢰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또한 편집인 측에서 설문 같은 방식을 통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찾아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90년대 초에 이광선(65)동문이 포괄적인 설문을 짜서 각 동창들에게 보냈을 때 큰 호응을 얻은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방대한 질의서가 아니더라도 시계탑이 출판될 때마다 20명 정도의 회원과 접촉하여 각자의 개인 가정 직업 모교 동창회 한국 미국 등에 연관된 생각을 반영시킨다면 연 100명 이상의 동창과 교신을 하게 되는 성과를 얻는다. 벌써 오래 전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편집장의 지방탐방기도 동문들의 단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주요 이슈 예를 들면 대체의학 한의학 병설 문제 남북한의 통일문제 같은 것을 적기에 선택하여 논단을 마련하여 회원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동기동창회와 지역동창회의 협조가 시급하다.

미주 동창회는 회원의 절대 다수가 60년대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 내 동창회와는 달리 연령의 스펙트럼이 좁아 선후배간에 거리감 없이 비교적 가깝게 사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친교의 깊이만큼 강조 한다면 전체 동창회를 지역동창회나 동기동창회에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친교의 폭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동창회 연례대회에 갈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한 재능과 인품(like minds)을 접하게 되며 동창회가 내 삶에 주는 활력(活力) 광채(光彩) 그리고 가치(價値)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동기회나 지역회가 대회 개최지나 임원진에 구애되지 말고 전체 동창회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대승적(大乘的, a broader viewpoint)인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3. 이사나 임원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컨퍼런스 콜이 가능한 이 시대에 이사나 임원의 위촉을 각 연배층과 지역을 망라하는 방도를 고려하였으면 한다. 그러나 동창회의 주축은 현재는 60년대 출신이다. 따라서 동창회의 원동력은 이들 세대로 교체되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젊은 나이부터 일해온 50년대 회원 특히 대회 등록금을 반액으로 공제 받은 세대는 자문역으로 물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이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반면 회장단은 90년대 후의 졸업 회원과의 교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그들의 참여로 동창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선배들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수가 적다고 비관하고 싶지 않다. 200명보다는 2000명의 회원이 더 무게를 가지겠지만 비록 회원의 수가 100명으로 줄더라도 우리의 긍지와 우애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면에서 계속> 시대역행적인 '전통의학의 세계화'라는 획기정책은 한국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 호응해서 한국 언론 지에도 온통 전통의학과 대체의학 광고 투성이니 너무나 한심스럽다.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하는 길만이 우수한 한국 의학을 살리게 될 것이다.

미국교포사회에도 대체의학 광고가 판을 치고, 학계단체와 무관한 유명단체나 교회에서 주최하는 대체의학 또

는 비과학적인 무당과 다름없는 건강강연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일류 의대졸업자가 출신학교와 학위를 내세우며 그들이 고안했다는 대체약품을 선전광고하고, 심지어 서울X대 교수들의 사진을 크게 실고서 그들 연구에서 입증된 만병통치 보약이라는 과대광고도 나돌고 있다. 물론 장사꾼에 이용당한 결과겠지만, 의사와 교수가 이런 짓을 해야만 먹고 사는지 슬픈 일이다.

동창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동문들의 책임감

정구영(57, 후로리다)

우리 동문들은 자타가 공인하며 가장 명성이 높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서울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곳 타국에서도 동문 모두가 훌륭한 의사로서 각 분야에서 존경받으며 만족스런 생활을 해왔으리라 믿는다.

미국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인정받고 활동하는 데 큰 힘의 동기는 서울대학의 의학 수련에 있다고 본다. 누구나 의학 기초지식을 쌓는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기초지식을 훌륭히 제공해줌으로써 우리가 튼튼한 교육의 기본을 닦을 수 있게 해 준 은인은 우리의 모교라 할 수 있겠다.

그러한, 훌륭한 모교를 나온 우리 동문 하나 하나가 감사함을 느끼고, 거기에 마땅한 책임감과 정열을 가지고 우리 동창회를 더 발전시키는데 협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많은 동문들이 은퇴를 했고, 또한 많은 동문들이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많아진 동문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 대학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동창회 활동이 점점 퇴보 된다고 보고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동문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Teamwork Spirit'을 살려보자.

시계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동창회를 재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1. 모교에 대한 존경과 책임감.

우리나라에는 부모님을 공경과 사랑으로 모시고, 일평생 부모님을 힘껏 보살펴 드리는 '효도'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며 6년 이상을 함께한 우리의 모교를 이러한 효도 정신으로 받들며, 동문들의 형제와 같은 우정을 아끼며 서로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동창회의 성장과 재활에는 모교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 그리고 동문들의 '자부심'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곧 모교 운영에 힘이 되고 새로 배출되는 동문들 에게도 모범이 된다.

모든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창회비 만큼은 빠짐없이 내는 것 또한 당연히 우리의 책임이다.

불행히도, 오랜 타국 생활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습을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변한 사람들을 때때로 본다. 동창회에 대한 감사함과 공경심, 그리고 동창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특히 이런 동문들 사이에서 재생시키고 싶다. '나의 동창회'이지, '남의 동창회'가 아님을 재인식 시키고 싶다.

2. 학년 대표와 지역 대표의 책임과 역할.

학년 대표나 지역 대표는 우리 동창회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하면서 서로의 소식을 교환하고, 동창회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매년 한 두 번씩 있는 총동창회 행사에 모든 동문들이 애써 참석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여기에 가장 큰 지장이 되는 것은 학년 동창회와 총동창회의 날짜가 겹

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일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여러번, 동학년끼리의 동창 모임을 총동창회 모임과 비슷한 날짜에 함으로써 많은 동문들이 총동창회 모임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고 들은 바가 있다.

동학년 대표나 구역 대표의 중요한 의무의 하나는 동창회에서 강의할 연사를 여러 사람 추천하고 그 강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총동창회의 준비위원장이나 프로그램 위원장이 직접 초대하면 대부분의 동문은 기꺼이 참석하리라 믿는다.

3. 동창회에 필요한 강의의 내용.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일반에게 흥미롭고 평범한 내용도 동문들이 많이 즐길 것 같다. 동문들의 전문 분야가 모두 다르므로, 어느 특별한 분야의 내용이거나 개인의 연구 발표에 대한 내용은 별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비슷한 강의의 내용을 몇 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면 매년 새로운 내용의 강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문들의 자녀들을 초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행사의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초대해서 강의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좋은 연사들을 초대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동문 대표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4. 아름다운 형제 자매와 같은 우정.

우리 동창회가 미국에서 설립된 이후로 몇 십 년 동안 나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따뜻한 감정은 항상 변함이 없다.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친밀한 느낌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히 따뜻한 감정이다. 동창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선후배간이라도,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우정과 반가움을 느낀다. 친형제 자매와 같은 이러한 '정'은 동창회를 통해서 재생되고 느껴질 수 있다.

나는 해마다 동창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더 깊어가는 선후배간의 우정과 아름다웠던 젊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다음 동창회 모임을 또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느끼고 나누면서 즐기는 동창회를 참석 못하는, 또는 하지 않은 동문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들은 "삶의 중요한 토막"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점을 참석하지 않는 동문들한테 제기하면서, 건강할 때 동창회의 힘이 되고 참석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개인 개인이 느끼는 동창회에 대한 불만과 부족한 점을 비평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책임을 느끼고 서로를 장려하고 협조해서 동창회가 공동 단체로서 뜻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 집과 가족을 사랑하듯이 동창회를 사랑하고 키우며, 동문간의 우정을 더 깊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창회 발전에 힘을 아끼지 않고 공헌하기를 바란다.

紙上法醫

바람 빠진 타이어

노용면(55, 대뉴욕)

헨드릭스씨(Mr. Hendrix)는 53세 난 사업가였는데, 렌트카(빌린 차)를 운전하고 뉴잉글랜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오후 늦게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자기 집을 떠나 뉴욕시를 향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에 있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뉴욕시에 가기에는 자기 차보다 렌트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듯 했다. 그러나 중간 지점에서 그 차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가 저녁 7시쯤 이었고 어두어지기 시작할 때였다.

18세난 두 여학생이 같은 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의하면 헨드릭스씨가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의 타이어 하나가 바람이 빠져 그곳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한참 동안 헨드릭스씨는 차를 세울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는 듯 보였고, 그가 다리 근처에 오더니 속도를 늦추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곧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태도였다. 타이어에서 불꽃이 튀기는 차를 타고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하면서 당황해 하는 그의 태도가 몹시 염려되더라고 후일 여학생들이 언급했다. 그러던 찰라 그의 차가 휘청하더니 도로 난간을 받았다. 헨드릭스씨는 운전대 뒤에 쓰러져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여학생들이 전화를 걸어 4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그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다.

지역 법의관이 그의 사망원인을 오

른쪽 관상동맥 혈전증 급 심근 경색증이라고 진단하였다. 몸에 외상은 없었다. 사망원인이 자연사로 분류되었기에 경찰 수사는 그것으로 끝났다.

유가족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렌트카를 전문가가 철저히 검사할 때까지 수리하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문가가 그 자동차를 검사한 결과 바람 빠진 타이어가 다른 셋 타이어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임을 알아냈고, 그 바람 빠진 타이어는 재생 타이어였는데 그 구조 조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 타이어속에 들어 있는 심지(코드, Cord)의 한군데가 지나치게 두꺼워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타이어내의 탄력이 고르지 않으면 단단한 부위와 덜 단단한 부위가 서로 만나는 곳이 터지게 된다. 그 지점에 압력이 가장 많이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력을 원주 불균형 스트레스(circumferential disproportion stress or girth stress)라고 부른다. 이 케이스에서는 그 접선 부위에 5 cm 길이의 파열이 있었다.

가족 변호사가 나에게 물기를 그 바람 빠진 타이어와 그의 심장 발작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내가 법의관실을 찾아가 모든 서류들을 조사했다. 조직 표본들을 현미경으로 검사하기도 했다. 부검을 한 법의관이 관상동맥 혈전증을 사인으로 열거했는데 그 혈전

은 우측관상동맥의 일부분에서 발견되었고 그 내경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었다. 심근에 있는 경색은 벌써 육아조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경색이 사망전 12 내지 24시간전에 생긴 듯 했다. 즉 그가 운전하던 차의 타이어가 바람을 잃기 훨씬 전에 그가 발병한 것이 분명했다. 아마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에게 심장병에 의한 증세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심근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비로서 증세를 나타내는 수가 있으며 때로는 관상동맥 협착이 또 다시 생길 때까지 증세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부검을 하다 보면, 심근에 경색변화가 여기 저기 넓게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이유로 죽는 순간까지 심장병에 관련된 병세가 전혀 없었던 예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생전에 심근경색을 몇번이나 경험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그러나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모두가 치명적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갑자기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심장에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심장의 박출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부정맥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자기 차도 아닌 차 바퀴에서 불꽃이 튀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려니, 그것이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

1964년에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일어나 30미터가 넘는 높이의 파도가 화물선 체나호(Chena)를 덮쳐 끌고 발데스항구(Valdes)로 몰고 갔다. 삼등 항해사인 랠프 톰슨 씨(Mr. Ralph

Thompson)는 겁에 질린 나머지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사망하였다. 톰슨씨 부인이 생명보험회사에다 그의 보험료 2,500불을 청구했는데, 거절 당했다. 그 이유로서 자기네는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있을 때" 보험료를 지불하지, 놀라서 죽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톰슨씨 부인이 보험회사를 걸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미국연방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를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손해가 없더라도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망했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적하기를 자동차가 정면 충돌을 할 뻔 했는데 충돌은 피했지만 운전수가 공포로 인해 죽었다면 그럴 때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톰슨씨의 경우에는 공포가 그의 심장에 타격을 준 중요한 원인(predominant cause)이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부인이 보험료 지불을 받았다. 현재 이 톰슨 케이스는 아주 중요한 판례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나는 이상에 기록한 여러가지를 지적하면서 헨드릭스씨가 자동차 타이어의 파열로 인해서 받은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렌트카 회사가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수락하였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Industrial Diseases and Injuries. Medicolegal Implication.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1978.
2. Yong-Myun Rho: Physical Injury in Relation to Sudden Death.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1984.
3. TIME Magazine: Life Insurance is Payable for Death Caused by Fright. June 2, 1967.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선에서 낙착되었는가는 17세기에 북쪽에 세력을 잡고 있던 영국과 남쪽 Louisiana와 북미 서북지역(지금의 Quebec)을 차지하고 있던 불란서가 북미대륙(동부 지역만에 국한되지 않)을 어디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 분쟁 하던 때 부터 시작된다. 그러던 중 영국 이권을 대표하던 Hudson's Bay Company가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삼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1719년에는 Anglo-French Commission의 영국측이 정식으로 북위 49도선을 Hudson's Bay Company의 남방한계선으로 하자고 제의했는데, 우리 38선의 3에다 1을 더하면 4요 8에다 1을 가하면 9가 되니 38선과 49도선, 기이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훗날 이 북위 49도선이 미국과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 되고 만다. 이 제의는 북서쪽에서 자리잡고 있는 불란서의 이해에 상치 되는지라 거부되어 실현되지 못했는데 18세기에 들어서 북위 45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은 미국 독립전쟁후 퀘벡과 뉴욕주 경계선이 되는 바탕이 된다. 지금 지도를 보면 45도선이 St. Lawrence 강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나가 있다.

독립 전쟁 후엔 Hudson's Bay Company territory와 함께 불란서가 차지하고 있던 Northern Territory도 영국이 차지하게 되고 여기에 미국도 동조해 그 결과로 1783년 Treaty of Paris로 맺어지는데 이 조약으로 Maine과 New Brunswick의 경계를 결정 지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미네소타 북쪽에 위치한 Lake of Woods로 부터 서쪽으로 미시시피강 까지 경계를 지지는 제안이 나왔었다. 사실은 영국이 불란서와 국경교섭을 할때 49도선

을 제안했었는데 세월이 지나 이때에는 미국이 이를 제안 영국이 수락, 1818년 10월에 미국과 영국이 49도선 국경선을 록키산맥까지 정하는 조약을 맺었다. 록키산맥에서 서쪽으로는 영미 공동 점령지역으로 하고 영국과 미국시민은 공히 자유로히 10년 간 들어갈수 있다고 하였다. 이 지역이



소위 Oregon Country로 불리게 된다. 오대호를 국경으로 삼는데는 미국도 영국도 이의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서부와 서북부 해안지대 소유권은 네 국가, 스페인, 러시아, 대영제국 그리고 미국이 contest하고 있었다. 주장은 다 똑 같이 자기네가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그 지역을 탐험, 조사했다는 것이다. 1825년에 미국과 스페인이 스페인의 영토 북방 한계선을 북위 42도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와 오레곤 아이다호와의 경계선이 42도인데 이때 스페인과 맺은 조약의 결과가 그렇게 만들었음것이다. 1824년엔 미국과 소련, 그리고 1825년엔 영국과

소련이 소련영토의 남방 한계선을 북위 54도 40분으로 하자는 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따라서 1825년엔 영국과 미국만이 소련과 스페인 사이의 전 영토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루는 나라로 남게 되었다.

영국이 어 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 영국의 Sir John Pelly는 1825년에 제안하기를 49도선 록키산맥 능선을 타고 남하 Lewis and Clark가 넘은 산을 지나 Snake River를 거쳐 Columbia 강을 따라 태평양에 들어가는 지역을 경계로 삼자고 제안했다. 미국측이 이 제안에 찬성함이 없이 12년이 지나자 영국 외상 Lord Aberdeen은 다시 비슷한 제안을 했으나 미국은 이를 일축했다. 영국에 비해 자기 claim 근거가 약한 것을 아는 미국은 이민을 장려함으로써 약점을 메꿀려고 하였다. 즉 전에 아무리 연고권이 있다고 했자 들어가 사는 놈을 쫓을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이민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정착하는 경우엔 640acre(1 평방 마일의 땅), 독신인 경우엔 320 acre의 title을 주었는데 후에 건잡을수 없게 되자 반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settler들은 Columbia 강 남쪽 주로 비옥한 Willamette Valley에만 몰리고 북쪽, 지금의 워싱턴주나 아이다호 쪽으로는 정착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다시 1844년에 협상에 들어갔는데 미국측은 자기 요구의 정당성이 약한점을 여차하면 실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은근히 비침으로서 메꿀려고 하였고 사실 미 상원위원회는 이것을 뒷받침 했다. 1845년 광창주의자인 James Knox Polk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를 지명한 1844년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영토 전역(Oregon Country)에 대한 우리들의 권리는 명명백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단 한치의 땅도 영국 또는 다른 어떤 세력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 슬로건이 되었다. 54도 40분은 전에 언급한 소련의 남방 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Polk는 당선후 1818년에 맺은 영국과의 공동 점령 협정을 폐기하는 권한을 의회에 요구했고 의회는 이를 부여했다. 그러나 Polk는 사실은 오래곤을 두고 영국과 전쟁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만간 캘리포니아를 놓고 멕시코와 전쟁하게 되리란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외상 Lord Aberdeen은 전 태평양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강한 미국의 의지를 파악하고 전쟁을 할 경우 긴 보급로를 지탱할 곤란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당시 영국 각료(cabinet)들은 골치 아픈 소위 "the Oregon Problem"을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집어치우기를 원하고 있었다.

Aberdeen은 미국이 요구하는 54도 40분에 대한 타협안으로 49도선에서 Columbia 강을 만나 거기서 강을 따라 가는 선으로 하자는 안을 내 놓았다. 그는 또한 미국에게 자기 영토내에 있는 항구를 자유로히 쓸수 있도록 개방 하겠다는 약속까지 덤으로 내 놓았다. 미국은 이 제안에 대안을 제시, Columbia 강을 따라갈것 없이 49도선에서 곧장 태평양 연안까지 나가 Vancouver Island까지 49도선에서 가르 자고 제안했다. 밴쿠버 아일랜드는 절대 잃을 수 없다는 일념과 그리고 Hudson's Bay Company의 Fort Victoria 가 이미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다는 이점을 고려하여 Lord Aberdeen은 49도선을 국제 경계선으로 하되 밴쿠버 아일랜드는 예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Polk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였고 이 제안을 상원에 제출, 1846년 6월 15일에 인준 되었다. 이 소식이 오레곤에 도달하는데는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영국인은 The Oregon Treaty로, 미국인들은 Treaty of Washington이라 불린 이 조약은 이때까지의 모든 영토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해양경계선은 '해협(channel)의 중간'을 따른다는 조문(clause)이 있는데 Strait of Georgia에 있는 여러 channel 중 어떤 channel을 의미하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기에 때문에 또 다시 해양 경계선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 1872년에 가서야 종말이 나게 되었다.

Pint Roberts - The "Inconvenient Appendage"

Georgia Strait와 Strait of Juan de Fuca가 만나는 곳에 자리잡은 San Juan Islands는 미국과 캐나다가 대륙 국경을 정하는 마지막 장면이 된 곳이다.

1846년에 체결한 Oregon Treaty, 또는 Treaty of Washington은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의 Passamaquoddy Bay에서 시작, Georgia Strait 그리고 Strait of Juan de Fuca에서 끝나는 미국과 영국의 국경선을 정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대체로 국경선은 북위 49도선을 따른다는 면에선 간단 명료하지만 그 선이 바다에 들어간 다음에는 덜 명확하다. 본문 그대로 옮긴다.

The boundary, the treaty stated, Shall be continued westward along the said forty-nin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to the middle of the channel which separates the continent from Vancouver's Island; and thence southerly through the middle of the said channel, and Straits south of the forty-nin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remain free and open to both Parties.

문제는 '대륙에서 Vancouver Island 를 separate 하는 중간 해협'이라는 문구다.

San Juan Islands는 San Juan Island, Orcas Island, Lopez Island, 기타 작은 여러 섬으로 되어있는데 밴쿠버 아일랜드와는 Haro Strait, 대륙 본토와는 Rosario Strait로 갈라져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1856년 미국과 영국 공동 국경조사대가 결성되었는데 영국측 Captain Prevost는 동쪽 channel, Rosaria Channel이 경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측은 그 근거로 Colonel Fremont(영국인)이 만든 지도 뿐 아니라 특출한 미국인이 만든 지도에도 분명히 Rosario Strait가 영국과 미국 경계선으로 나와 있는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 commission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경계선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소유권에 대한 의견충돌이 일어났다.

1859년 6월 오하이오에서 온 미국 settler, Lyman Cutler는 Hudson's Bay Company 소유의 돼지가 자기 감자밭을 파 헤치는데 화가 나 돼지를 쏘아 죽였다. 이에 대해 Hudson's Bay Company는 배상금 100 불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했고 사태가 점차 험악해지자 미국측 Oregon Military Commander, W. S. Harney는 군대를 San Juan에 상륙시켰다. 그리고 Captain George E. Pickett은 "이곳은 미국의 영토인지라 미국외의 다른 어느 법도 이 섬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포고문을 선포했다. 미국측에 대응, 영국 Governor James Douglas는 군함 두 척과 해병대 그리고 공병대를 상륙시켰다. 이로 인한 서로의 대치는 소위 'Pig War'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미국 정부는 Harney 의 처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General Winfield Scott를 보내 문제 해결을 맡겼다. 그와 Douglas는 우선 이 섬을 미영 공동으로 점령하자는데 합의 북쪽에는 British Camp, 남쪽에는 American Camp를 1860년 부터 1872년 까지 두게 되었다. 1872년에 양측은 arbitration을 함으로서 교착상태를 벗어나는데 합의, arbitrator로서 독일 Kaiser Wilhelm을 정했다. Queen Victoria가 Kaiser Wilhelm의 cousin이었는데 영국이 기대를 걸었다면 그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Kaiser Wilhelm은 영국이 기대했던 Rosario Strait이 아니라 Haro Strait를 경계선으로 결정을 내린것이다.

당시 인기있던 매거진 Harper's Weekly는 이 사실을 지도와 함께 보도 하면서 이 San Juan Islands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는 누구에게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영국이 Kaiser Wilhelm의 결정에 얼마나 속이 쓰렸겠는가? 하고 썼다.

The San Juan Boundary Dispute

1846년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을 북위 49도선으로 한다고 조약을 맺을 때는 이 49도선이 실제로 어디로 통과하는지는 고려함이 없이 서둘러 맺어졌었다. 그런데 일단 이 조약대로 측량을 해 본즉 아주 자그마한 반도가 미국 본토와는 떨어져 캐나다를 거치지 않고는 갈수 없는 땅이라는게 판명 되었다. 이 땅이 미국 본토 맨 서쪽에 있는 Point Roberts인데 영국측은 이 쓸모없고 귀찮기만한 땅을 영국에 속하게 하는게 어때냐? 그게 싫으면 대신 다른 영국 영토로 바꿔치기 하는게 어때냐 하고 제의했지만 거절, 지금도 이 '귀찮은 땅'이 미국령이 되어 있다. 결과로 거기 사는 미국인들은 모든것(식품, 가스, 전기 등)을 British Columbia에 의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제일 가까운 본토 학교, Blaine에 매일 통학하는 고통을 참고 있다. 매일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 캐나다에 입국,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엔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버스로 45분 왔다 갔다 한시간 반을 버스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이 Blaine이 수백 야드나 캐나다 쪽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측량할때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아 미국은 미국대로 캐나다를 캐나다 대로 측량했는데 그나마 그 지도가 분실(?) 나중에 찾아서 차이를 발견, 다시 측량을 하는데 법석을 떨었는데 둘 다 지쳐서 차이 나는 지역 중간에 줄을 치고 "에잇! 이왕 이렇게 된것 그대로 두자"는 걸로 낙착되었다는 것이다.

9월이 오면 나는

이 한 중(65 미시간)



9 월이 오면 나는
산뜻한 마음으로
산뜻한 아침에
산으로
들 벌판으로
푸른 창공 쳐다보며
마냥 걸어 보겠습니다

9 월이 오면 나는
친구들을 찾아
여름 내내 바쁨을 핑계 대고
삶에 쫓기고 쫓겨 다니다가
잊어버렸던 친구들 찾아
이 땅의 끝까지
저 바다 건너 어느 먼 동네까지 아니
저 하늘과 저 지평선이 입 맞추는 곳 까지도
마냥 헤매어 보겠습니다

9 월이 오면 나는
아름다운 낙엽들을 생각 하게 되고
그러자면 온 갖가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직도 생생한 지난 여름날들의
짙막한 짙막하고 즐거웠던 하루하루들을
정성 들여 곱게
한 톨의 후회도 못 들어 가게
조심스레 포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낙엽들이
이 온 세상을 훌쩍 떠난 그 어느날 아니면
갑갑한 동지선달 늦은 밤에
살며시 열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9 월이 오면 나는
어느새
한 톨의 티끌도 없는
맑은 마음으로
옛날의 소년으로 돌아가게 되고
있었던 친구들
소중한 친구들 하나하나
이 인생을
같이 이해해보고
같이 살아오는 그 분들을
경쾌하게 만날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나는
후딱 지나갈 이 계절을
마냥 즐겨볼 준비에 바빠집니다

존재

노 송 국 (70, 텍사스)

존재의 의미가 아무 느낌없이
무거워지는 밤이면
모두 잊고저 서성이는 잠없이 고적한 시간들.

시집의 강박감도
숫자뿐인 달력의 형식도 없는
세월 초월한 진공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죽음을 기다린다.



다시 San Juan Islands에 관한 잡소리를 하나 보태면 조약상(그리고 지도상) 미국영해와 영국(아니, 캐나다)영해가 정해져 있지만 channel에 말뚝을 박은것도 아니니 자기 배가 미국 영해에 있는지 캐나다 영해에 있는지 알수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이곳에는 whale watching tour boat가 많은데 고래가 이 국제 수로 경계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10년, 20년 아무 문제없이 투어 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미 해양경비대가 쫓아와서 캐나다 배가 입국허가 없이 미국 영해에 들어왔다는 구비서류가 있느니 없느니 해서

고래 구경왔던 사람(그중 한사람은 독일에서 온)들은 고래 구경은 못하고 하루 종일 이민관 구경만 하고 돌아갔다는 기사와 사진이 이곳 신문을 장식했었다. 다행히 불법 입국한 고래는 무사했다지만.

9.11의 또 하나의 희생물. 물론 백인이 San Juan Islands에 상륙하기전에는 'Pig War'란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었겠지만 말이다.

참고한 책은 Historical Atlas of the Pacific Northwest by Derek Hayes Sasquatch Books, 615 Second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4

자급자족의 본능

허 선 행(64, 대뉴욕)

아직도 지구상엔 자급자족을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이 살고있는 한반도 북쪽에선 그정도가 어느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해 왔던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급자족은 본인이 벌어드리는 것이 쓰는 것 보다 적을 때 일어나고 가정이나 국가도 이 원칙에 따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었거늘 ...

원래 농경사회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기후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농사와 외국의 침략과 약탈, 조공으로 몇천년 동안 자급자족을 제대로 해온적이 있었는가? 의아해진다.

과거 2-3십년 동안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급자족의 아주 높은 벽을 넘어선 남한의 경제는 배고픔을 걱정 안하게 되었고 오히려 소위 체중조절, 음식섭취 조절의 행복한 비명의 경지를 이루게 했으나 자급자족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자급자족의 원리가 우리의 건강에 더 절실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자기의 손상된 장기를 자기 스스로 교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 이겠는가!!! 하는 경지에 온 것이다.

일부 동물들의 예를 들어 본다면

'살라만더'라는 짐승은 수족이 떨어져 나가면 똑같이 재생이 되고 꼬리, 눈의 렌즈, 망막 및 창자도 재생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어느 생선은 지느러미 척수와 심장의 일부도 스스로 재생되고, 거미도 잃게된 수족이 재생된다는 것이다. 사슴의 뿔도 일부가 손상되면 바로 재생되는데 하루에 2센치씩 자라난다고 한다.

그렇다고 인간은 이런 재생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 우리의 간이 손상을 받으면 대개 한달내에 재생이 되는 사실은 오랫동안 알려져온 사실이다.

손상이 되었거나 병든 장기를 제거하고 남의, 심지어는 동물의 장기를 이용하는 장기이식은 수십년간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 기능의 증진을 가져왔지만 엄청난 공급의 부족으로 장기때때 암시장이 생겼고 특히 젊은 이들의 심심한 장기를 비교적 싸게 사서 현지에서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서양에서 동양으로 자기 생명의 구세주를 찾아가야 하는 현실도 생기기 된 것이다.

심지어는 장의사와 공모해서 시체에서 불법적으로 떼어낸 장기를 팔아 온 사건도 있었으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장기 자급자족이 보다 더 절실하게 되었다.

"찾으면 구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제 전세계 과학자들, 특히 '줄기세포' 연구진이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신체조직 및 장기의 자급자족의 원칙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 본능이 충족될 것으로 믿으며 환우석 교수의 이상향이 충족되어 많은 인류의 신체적 결함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새들은 알을 까고 양부모가 서로 번갈아 뱃속 주머니에 넣어 부화될때까지 보존하는데 서로 번갈아 몸에 간직할때면 상당한 소심을 요한다. 조금만 잘못하여 떨어뜨리면 곧 얼어버려 부화가 안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혼하고 헤어진다.

성공해서 병아리가 잘자라 독립하게 되면 또 그들은 헤어진다. 그러나 1년은 일부일처제이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또 새끼를 찾는데 암놈이 많아 경쟁이 보통 심한것이 아니다. 숫놈은 바다에 먹이를 구하러 가다가 사나운 짐승들에게 많이 죽임을 당한다. 알을 낳은 암놈은 기진맥진되어 곧 바다로 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곧 죽는다. 그리고 돌아올때면 목에다 음식물을 저장해 가지고와 새끼를 먹이는데 한번 주면 몇일 동안 간다. 돌아와서 자기의 짝을 찾을때는 서로 노래를 불러 목소리를 듣고 서로 찾는다.

기독교에서는 그들의 뒤뚱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을 신도들의 신앙생활과 결부시켰고, 또 새끼가 독립될 때 까지 보호하는 책임감, 돌아와서는 자기 짝을 찾는 일부일처제 등으로 배울점이 많다하여 오하이오주, Ben Hunt라는 목사는 오하이오, 미네소타 전역에서 153개 교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교인들에게 다 이 영화를 보게 하였다.

영 화 이름은 "March of the Penguins" 오스카상을 탈만한 조건을 갖춘것은 우선 새들의 생식과정을 정밀하게 찍었으며, 남극 빙산의 장엄한 경치를 잘 보여주었으며 장면이 바뀔 때 마다 아름다운 음악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특히 Morgan Freeman(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조연 오스카상을 탐)의 해설에서 목소리와 역량이 우화작가적 이었으며 어린이 잠재우는 식으로 부드럽게 해설한 것이 더욱 더 이 영화를 오스카상에 올려놓았다.

Penguin



고 애 자 (Mrs. 이운순 58, 대뉴욕)

서울대학신문에서 68년 사대졸업 박흥진 동문의 글에서 영화란 나의 존재와 시간, 공간을 새로운 경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와 공감가는 글을 써 주셔서 감사했다. 이번 78회 Academy award motion picture and science에 기록영화 부문에서 Penguin이 당연 오스카상을 획득했다. 이 영화는 불란서 영화진 30명이 1년 1개월에 걸쳐서 처음에는 불란서인들을 위해서 영화감독(Luc-Jacquet)이 촬영하다가 심한 폭설로 두 기술자들이 사라져 촬영을 중단 영화사는 파산선언을 하기 직전 그들을 찾게되어 그들의 생명은 구했으나 온몸에 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개봉된 영화가 사상 두번째 많은 관객을 끌어 77 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견었다.

펭귄은 새종류에 분류되지만 날지 못하고 물위로 7피트 정도 뛰어 오를 수 있고 물속으로는 1,480 피트 정도 갈 수 있는 수영을 잘하는 새이다. 종류는 16종인데 S. Africa, Newzeland, South America, Peruvian 등 따뜻한 물에서 사는 2 피트 크기의 작은 것들도 있으나 이 영화가 다룬 펭귄은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크기가 4 피트, 무게가 90 파운드의 특이한 종류이다.

해안에서 내륙쪽으로 70 마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일주일동안 밤에는 달을 따라 낮에는 해를 따라 산속의 수도사들처럼 한줄로 줄지어 가는데 다 모이면 7천마리가 된다. 이곳에 모인

농담골목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니 여학생 하나가 "나의 어머니는 45세인데 아직도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할 수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나의 언니는 15세인데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 가능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나는 10세인데 나도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안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 뒤에 앉아 있던 남학생이 "그것 봐 내가 말한대로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면)

대학에 다니는 딸이 시골쪽에 이사를 갔다가에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 왔습니다. 단간방인데 아직 침대도 없었습니다. 밤이 너무 저물어 아버지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딸의 남자 친구가 찾아 왔습니다. 그도 밤이 늦었다면서 그곳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한 방바닥에서 함께 자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 한 구석에 먼저 들어 누웠습니다. 그후 얼마쯤 있다가 남자 친구가 노인의 머리카락 하나를 잡아 당겼습니다. 노인이 아파하는 표정을 보이니 젊은이가 애인에게 "아직 잠이 안 든 것 같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얼마쯤 더 있다가 남자 친구가 그의 머리카락 하나를 또 잡아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아파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얼마쯤 더 기다렸다가 젊은이가 노인의 머리카락 하나를 또 잡으니 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고 내머리를 만지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면)

정신과 병실에서 입원을 한 환자가 허니아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의사: 내일 허니아 수술을 할텐데 어느 쪽이지요? 환자: 아니, 의사 선생님이 모르는걸 내가 어찌 압니까? (이덕송)

어떤 색시한 젊은 여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술만 마셨다 하면 남자를 밝혀요, 그리고 ..." 환자의 말을 중단한 의사 왈, "잠깐만요, 우리 양주 한병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해 봅시다." (이덕송)

신혼여행을 할 때 신부가 꼭 가지고 가야할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새 배를 타고 멀미를 안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하권익)

뉴욕에 살고 있는 벼룩이와 워싱턴에 살고 있는 벼룩이는 절친한 친구사 이었다. 어떤 해에, 둘이는 플로리다 휴양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거리가 더 먼 뉴욕 친구는 약속한대로 도착하여 친구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가고, 삼일째 되는 날에야 워싱턴 친구가 지친 모습으로 도착을 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어휴! 말도 마! 너무 고생했어. 이차저차 비행기편을 모두 놓치고, 이만 저만 하다가 어떤 아저씨 콧수염에 숨었는데, 계속 오토바이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 3일이나 걸렸다네! 아이구! 아주 얼어 죽는줄 알았어."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나?"

"나는 용케도 어떤 아주머니 사타구니 숲속(?)에 숨어 들어가서 따뜻하게 비행기편으로 잘랐지!"

둘이는 멋지게 휴양을 하고나서, 그 이듬해 또 만날 기약을 하고 헤어졌다. 그 이듬해에도 역시 뉴욕 친구는 정각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워싱턴 친구가 또 3일씩이나 늦게 도착해서 늦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어휴~ 이번에도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어! 작년엔 자네 말 듣고, 어떤 미모의 아가씨 배꼽아래 숲속으로 용케 잘 숨었는데, 공항으로 가는 차가 밀려, 비행기를 놓치고, 호텔에 가게 되었다네. 그런데 말이야 한밤중쯤 되니까, 어떤 콧수염이 들어와서 사정없이 숲속으로 파고 들어와 얼굴을 비벼대는데, 내가 재수없게 또 그 콧수염에 붙게 되지 않았겠나? 그러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그대로 호텔을 빠져나오더니 또 오토바이로 계속 달려오는데 작년처럼 꼬박 3일이 걸렸지! 나 이번에도 얼어 죽는 줄 알았다네." (行)

시계탑 편집위원회 초록

- 날짜: 9/29/2006 저녁 7시 장소: 청해진(뉴욕, 플러싱)
 참석자: 노용면, Mrs. 노용면, 김병석, 허선행, 서인석, 황창근
 결석자: 송관호, 이희경, 서량
1. 다음 편집위원 모임 부터는 모임 날짜를 일정하게 미리 정하여 알려줄 것을 결정하였음.
 2. 신임 이사회에서 시계탑에 회비 납부자 명단을 실지 말차고 결정하였다고 하나 시계탑 위원들의 생각은 실는 것이 동창회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신임 회장에게 통고기로 함.
 3. 시카고 지부에서 회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자 명단에 누락되었음을 통지해 왔다. 이번호에 그 명단을 게재하기로 함.
 4. English 원고가 2세한테서 들어올 경우에는 검토후 실을 수도 있다고 결정함. 원칙적으로 영어 원고는 실지 않기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
 5. 기부금 광고 및 납부자 소식 등 명단은 실기로 한다.
 6. 동창회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도록 시계탑에 광고하기로 함.
 7. 행사 사진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컬러인쇄를 할 수 있음을 결정함.
 8. 다음 '동창회에 제언'은 임낙중(59)동문으로 함.
 저녁 9시반 폐회

참 좋은 병원-

할리우드 차병원

“
 한국 차병원그룹의 신뢰와 명성을
 미주 동포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할리우드 차병원 가족은 혼신의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



차병원그룹과 함께하는 -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CHI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1300 N. Vermont Ave., Los Angeles, CA90027
 Tel: 213~413~3000 Korean Call Center 323~913~4900

1) Universal Studio
(www.universalstudioshollywood.com)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볼거리와 탈거리를 제공하는 남가주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다. 하루 관광객이 10만이 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할리우드 영화제작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최신 영화의 명장면을 직접 체험하는 각종 ride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재미를 선사한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Fear Factor Theater에선 위험천만한 스텐트 액션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영화 세트와 스튜디오 내부를 둘러보는 45분짜리 tour course에는 최근 톰 크루즈가 주연한 외계인 전쟁영화 'War of the World'가 추가된다.

LA 한인타운에서 101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으로 가다가 Lankershim Blvd. 출구에서 내리면 주차장으로 곧 바로 연결된다.

Address: 100 Universal City.
Telephone : 800-UNIVERSAL

미주동창회 2007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로스앤젤레스 유명 관광 명소 안내



Philharmonic과 Los Angeles Master Chorale의 새전당으로, 가장 최신기술의 공간, 건축 걸작품을 만들어 LA 시민과 전세계에 헌납된 음악전당이다. \$278 millions가 들었으며 16년 걸려 만든 Concert Hall이다

4) Reagan Presidential Library (www.reaganlibrary.com)

40 Presidential Drive, Simi Valley, CA 93065 phone: (800) 410-8354

1991년에 개장된 박물관으로, 미합중국 대통령 박물관으로서는 가장 잘 건축된 박물관으로서, Air Force One Pavilion에는 대통령이 타던 Air Force One 대통령 전용기가 전시되어 있다. 레이건 대통령에서 클린턴 대통령까지 사용된 Air Force One 비행기다.

5) Richard Nixon Library & Birth Place (<http://www.nixonfoundation.org/>)

닉슨 대통령의 출생지이며 청년기를 보낸 곳에 대통령 박물관이 많은 역사물과 함께 잘 정리 보관되어 있다.

6) Disneyland Park in Anaheim (www.disneyland.com)

아이들 및 가족의 휴가지로서 잘 알려져 있기에 생략.

7) Crystal Cathedral Ministries (<http://www.crystalcathedral.org/>)

Dr. Robert H. Schuller 목사의 Kingdom이라할 수 있는 곳으로 Convention hotel에서 30분내의 거리에 있으며 일요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관광을 할 수 있다. 30년전 Dr. Robert H. Schuller에 의해서 Foundation이 Anaheim, Orange



기차로 떠나는 콜로라도 여행

"Discover West America"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창엄한 산들과 험악한 절벽, 계곡을 따라 맑고 깨끗한 콜로라도 주를 기차를 타고, 가장 경치 좋은 국립공원으로 자연을 찾아가는 2007년도 여름 휴가를 동문들께 소개합니다. 작년 여름 61년도 졸업동기들의 reunion 프로그램으로서 50여명에게 크게 환영받은 프로그램 입니다. 이번에는 콜로라도에 사시는 김유홍(61)동문께서 assistant guide로서 동행하시게 됩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신청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주관 여행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andi@centennialtravel.com)

Date: June 16 ~ 24 2007 for 50 people only(first come, first serve)

Reservation: Centennial Travelers / P. O. Box 1416, Ft. Collins, CO 80522

\$200 per person due at time of reservation before July 21, 2006

Price: \$1,189 double occupancy (\$1,579, single)

Toll free phone: 800-223-0675 contact Sandi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